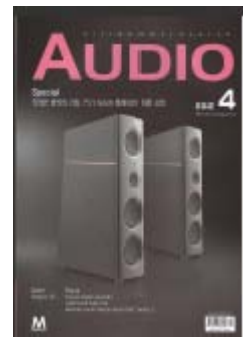


FURUTECH

Audio (Korea) – Cruise

April 2012



New Product

수입원 D.STKOREA (02)719-5757
 가격 66만원
 DAC WM8768 24비트/192kHz
 USB 입력 (TE7022L) 24비트/96kHz
 주파수 응답 20Hz-20kHz(±0.5dB)
 채널 분리도 60dB THD 0.02%
 크기(W*H*D) 6.5×2.8×12cm 무게 196g



Furutech ADL Cruise

언제 어디서든 음악과 함께 향해하라

아는 순간부터 음악은 떼어낼 수 없는 동반자가 되어버렸다. 그 짧은 한순간도 풀고 다녀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음악의 집착은 또 다른 소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휴대용, 더 나아가 고성능 휴대용. 점점 더 욕심이 커지면서, 이 틈새 시장은 어느덧 메인 스트림으로 급성장했다. 덕분에 유저들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휴대용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직지판, 고성능, 그리고 디자인까지 예쁘면 금상첨화이다.


국내에서는 케이블 및 액세서리 제조사로 유명한 후루텍이 본격적으로 젊은 층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알파 디자인 랩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가지고, PC 파이 및 휴대용 제품들을 출시한 것 이들이 소개하고 있는 여러 제품들을 보면, 단순히 유행에 편중된 급 제조된 제품이 아니라, 여러 노하우를 가진 이들만의 독창적인 노력들이 엿보인

다. 가격 또한 성능에 비해 아주 매력적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 완벽한 공진의 통제, 제품 정원을 위한 헌신 등의 후루텍 고유의 철학도 여전히 유효하다.

매력적인 디자인이 한 눈에 들어온다.

유려한 곡선이 특히 인상적이고, 고광택의 마감도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한 마디로 들고 다닐 맛이 나는 디자인, 꺼낼 때마다 뿌듯함이 느껴지는 그런 매혹을 가지고 있다. 카본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된 제품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이지만, 담아낼 것은 다 담아내고 있다. 헤드폰과 이어폰뿐만 아니라, PC를 통한 USB 입력도 지원한다. USB는 기본적으로 24비트/96kHz까지 활용할 수 있다. USB를 통한 전원 공급도 가능. 고성능 헤드폰 앰프를 담아놓은 것도 주목할 만한데 12Ω에서 600Ω까지 다양한 임피던스의 헤드폰을 풀아낼 수 있다. 고품질의 볼륨단을 채용했고, 금도금의 3.5mm 아날로그 라인 입력으로 핸드폰이나 MP3 플레이어에 연결할 수 있다. 참고로 미니 라인 케이블과 USB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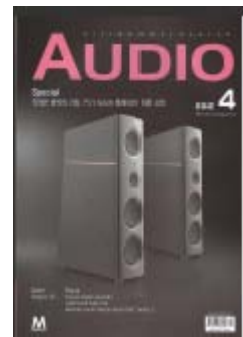
사운드 역시 주목할 만하다. 휴대용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사운드를 연출해낸다. 거친 입자가 가득 생성되는 그런 사운드와는 거리가 멀고, 제법 투명한 사운드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배터리는 대략 80시간을 송출시키고, 완충까지는 5시간 정도가 걸린다. 긴 구동 시간이 특히 만족스럽다. 휴대용 앰프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많은 단점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 장점들은 최대한으로 살린 제품, 그것이 바로 크루즈이다. 



FURUTECH

Audio (Korea) – ADL GT40

April 2012



수업권 D.S.T.KOREA (02)719-5757
가격 69만5천원 USB 입력 24비트/96kHz는 주파수 응답 20Hz-20kHz
SN비 -90dB 출력 레벨 1V, 80mW(32Ω), 최대 입력 레벨 1V, 0.4mV(MC), 5mV(MM)
크기(W×H×D) 15×57×11.1cm 무게 785g



Furutech ADL GT40

내 손으로 고해상도의 음원 만들기

최근 USB D/A 컨버터의 열풍이 대단하다.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하나둘씩 출시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GT40은 다양한 케이블과 단자 제조로 유명한 후루테크에서 ADL(Alpha Design Labs)이라는 서브 브랜드를 통해 출시했다. ADL은 하이 레벨의 컴퓨터 기반으로 음악을 재생하기 위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휴대용 헤드폰 앰프 겸 USB DAC로 ADL 크루즈, ADL 스트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USB 케이블과 HDMI 케이블, 아이팟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블 등이 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USB D/A·A/D 컨버터인데, 보통의 D/A 컨버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이하게도 포노 앰프(MM, MC)




가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텐테이블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컴퓨터에 바로 녹음할 수 있다. 기기 후면에 위치한 스위치로 MM, MC, 라인 입력을 선택할 수 있어 녹음할 소스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GT40은 USB 입·출력을 통해 24비트/96kHz의 스튜디오 퀄리티의 재생 및 녹음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지연(Low-Latency) USB 2.0 오디오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이나 녹음 시 반응이 늦게 와서 생기는 시간차 같은 것이 없다.

PC와의 연결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 특별하게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그냥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제어판의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 설정에서 오디오의 소리 재생 항목과 소리 녹음 항목을 이 기기로 설정하면 음성 재생과 녹음이 이 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윈도우즈 XP 기준).

그리고 헤드파이 유저를 위한 헤드폰 앰프가 내장되어 있다. 전연의 헤드폰 단자에 헤드폰을 연결하고 볼륨 노브로 볼륨을 조절해서 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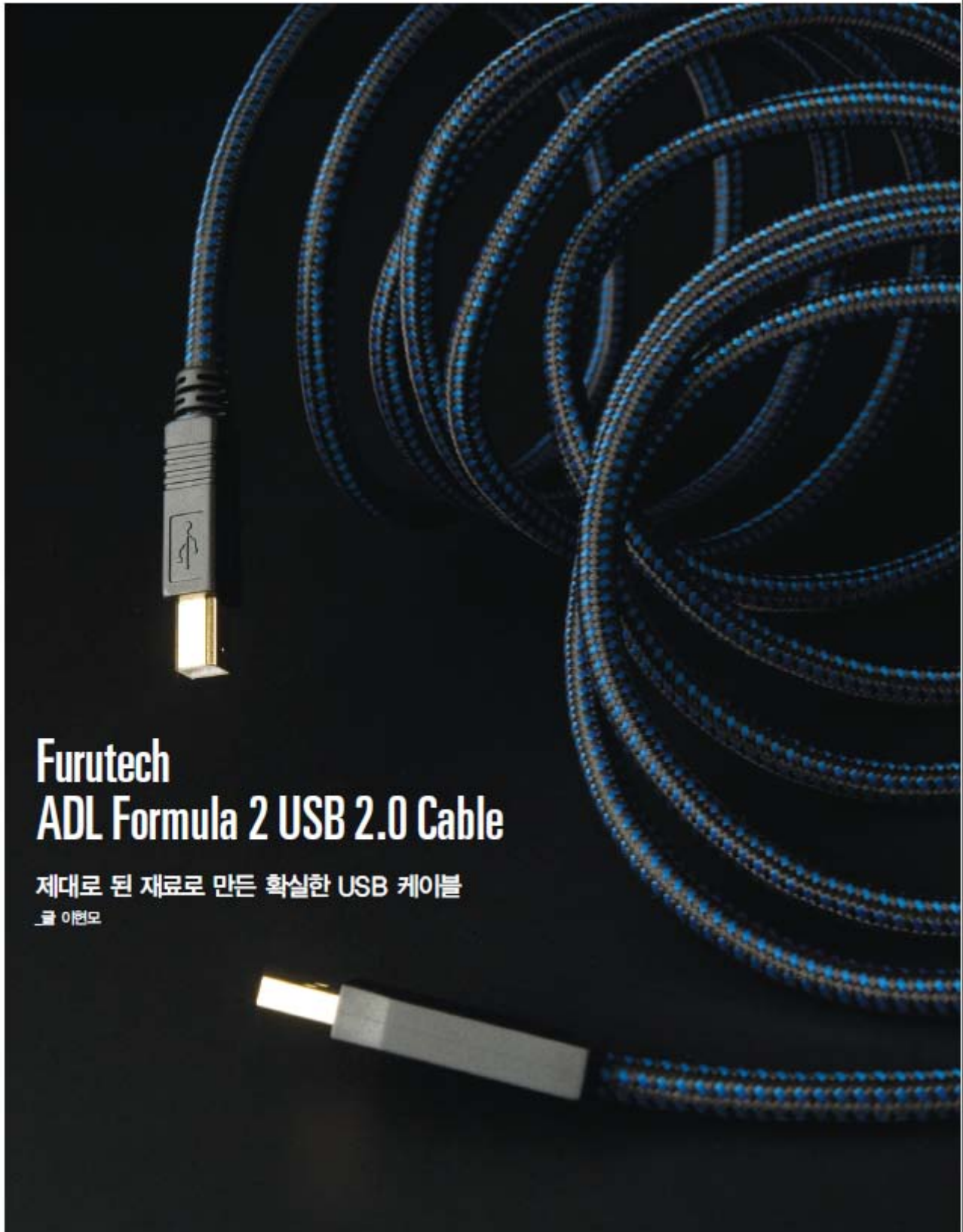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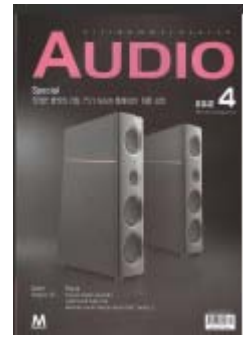
이 기기는 고해상도의 음원 재생은 물론, LP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직접 컴퓨터에 녹음해서 고해상도의 파일로 만들어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요즘 LP 음반을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곳에서 팔고 있는데, 텐테이블만 있다면 시도해볼 직하다. 직접 만든 24비트/96kHz의 고해상도 음원을 즐기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다. 



FURUTECH

Audio (Korea) – ADL Formula 2

April 2012



Furutech ADL Formula 2 USB 2.0 Cable

제대로 된 재료로 만든 확실한 USB 케이블
글 이현모

필자가 이번에 시청한 포물리 2 USB 2.0 케이블은 ADL(Alpha Design Labs)라는 회사의 제품이다. 관련 자료를 보니 ADL은 일본의 케이블 제조업체로 유명한 후루텍(Furutech)의 자회사라고 한다. 이재야 포물리 2 USB 케이블에 대해 수궁이 간다. 케이블 전문 업체에서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오디오 업체를 따로 만들고, 자신이 만든 케이블로 오디오 전용 케이블을 만들어 파는 구조이다.

그런데 ADL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꼭 케이블만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헤드폰 앰프로 ADL 크루즈, ADL 스트라이드가 있고, USB-DAC로 2011년에 해외 오디오 전문지에서 수상한 ADL GT40과 ADL 에스프리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필자가 시청한 포물리 2 USB 케이블과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스테레오 케이블, HDMI 케이블 등이 있다. 이 제품군을 보니 ADL 브랜드 제품들은 하나같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기와 케이블임을 알 수 있다. 요즘 오디오 애호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PC 파이, 즉 자신이 좋아하는 음원을 고음질 디지털 음원으로 컴퓨터나 이동식 저장 장치를 사용해 재생하고 있다.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디지털 신호 전송을 위한 디지털 케이블과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주는 D/A 컨버터이다. 이런 재생 음악 감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오디오 케이블인 인터넥터 케이블과 스피커 케이블, 파워 케이블보다는 PC 파이, 디지털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는 디지털 케이블과 이를 연결하는 D/A 컨버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후루텍이 자랑하는 알파 케이블을 적극적으로 이 디지털 케이블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시청한 ADL 포물리 2 USB 2.0 케이블도 2011년에 여러 해외 오디오 전문지에서 수상한 바 있다. 이 케이블의 선재는 은도금된 알파 OFC 도체이며, 이를 감싼 절연체는 특급의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했다. 3겹의 실드 처리를 해 더 나은 노이즈 처리를 했다. 연결 단자는 24K 금도금 USB 2.0 커넥터이다. 후루텍의 더 특화된 GT2, GT3 USB 케이블처럼 선재를 감싸고 있는 진동 감쇠재와 차폐재가 기계적 진동과 울림 등이 신호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 완벽하게 설계된 구조는 선재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기계적, 전기적 왜곡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케이블 종류로는 포물리 2 USB-B(Type A-B), USB-mini B(Type A-mini B) 등이 있다.

ADL 포물리 2 USB 케이블을 시청하기 위해 노트북에 평소 듣는 음원들을 루바2000으로 재생했다. 여기에 포물리 2 USB 케이블을 연결해 심오디오 650D를 D/A 컨버터로 사용했다. 티악 AI-3000 인터앰프와 마그나트 퀴텀 1005 스피커를 연결해 시청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 USB 케이블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제2번 3악장 장송행진곡(Hyperion)을 최고의 기교파 피아니스트 마르크-앙드레 아를랭의 연주로 들어 보았다. 전체적으로 소리가 단정해지고 부드럽다. 울림도 풍부하게 들린다. 이것은 해상도가 높아져서 피아노의 배음 표현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를랭의 다양하게 변화하는 타건력도 제대로 표현된다.

러시아의 젊은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 '위대한 예술가들 회상하며'(Erato)에선 현악기들의 음색과 질감이 사실적으로 들리는 편이다.

조수미가 부른 비발디의 '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RV630' 중에 나오는 '라르 게토'(Wamer Classics)를 들었다. 앞부분에 나오는 저음 현악기의 반주와 조수미의 목소리 역시 기본적인 해상도를 바탕으로 명료하면서도 힘 있게 표현한다.

첼리비다체가 지휘하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EMD 제4악장 합창 부분에서는 좌우로 넓은 음향 무대를 펼쳐낸다. 그렇지만 깊은 안 길이까지 표현되지 않는 것 같다. 적당한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의 배치가 명확하고, 타악기의 타격감도 좋은 편이다. 솔로 가수의 목소리와 합창대의 목소리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ADL 포물리 2 USB 케이블은 후루텍의 은도금된 알파 OFC 도체를 사용한 USB 케이블로, 기본적인 해상도를 바탕으로 사실적이고 명료한 소리를 들려주는 디지털 케이블의 하나이다. 디지털 음원을 재생할 때, 또 광대역의 음악 신호를 재생할 때 관여하는 디지털 케이블로서 성능과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는 케이블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하이엔드 케이블의 면모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A**

수입원 D.S.T.KOREA (02)719-5757



가격 1495천원(3.6m)